괌에서 열린 우쿠두 가스복합 발전소 착공식 시삽행사에서 (왼쪽부터) 양구정 수출입은행부장, 김인국 주하갓냐출장소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이현빈 한전 경영지원부사장, 존 깔보 괌 주지사 비서실장, 조 샌 어거스틴 괌 상원의원, 맬리사 사바레스 괌 데데도 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괌에서 태양광 발전소 준공

착공 25개월간 공사 '60MW급'
198MW급 가스 화력발전소 착공
국제경쟁 입찰 수주 최초 사업

한국전력은 미국 괌에서 60MW급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 준공식과 198MW급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괌 주지사, 의회의장, 전력청장, 시장, 주괌 미해군 부사령관 등 괌 주요인사 및 한전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동서발전 김영문 사장, 삼성물산 김성곤 본부장, 두산에너빌리티 임광재 상무 등 국내외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과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사업은 한전이 미국에서 국제경쟁 입찰로 수주한 최초의 태양광, 화력 IPP 사업으로 특히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부터 금융종결, 건설, 준공까지 달성한 최초의 해외 그린필드 태양광 사업이다.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괌 전력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이후, 2020년 5월에 착공해 만 25개월간의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준공했다.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사업은 2019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2022년 5월 말 발전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착공지시서가 발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5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현빈 한전 경영지원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발전소까지 준공되면 미 아시아-태평양 해·공군의 전략적 허브인 괌 전체 전력설비 용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EPC업체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권이 '팀 코리아'가 돼 만들어낸 성과"라며 "괌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괌 전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글로벌 발전 사업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지현 기자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 57억 달러 흑자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 발표
수출 25.1%·수입 44.1% 증가

인플레이션·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상반기 전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남은 상반기 57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의 '2022년 6월 및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동기비 25.1% 증가한 34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동기비 44.1% 증가한 28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57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유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석유·석유화학제품·반도체 등의 품목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단가 강세 지속 영향도 컸지만 물량 자체도 전년동기비 2.0% 증가했다.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소비 둔화,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철강판, 자동차, 냉장고 등 품목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감소했다.

광주는 상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비 8.1% 증가한 88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 둔화, 러-우 사태 및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수출차질로 냉장고, 자동차 등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강세 지속, 업황 호조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32.4% 증가한 253억6,000만 달러로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자체 수출 순위도 6위로 올라섰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수입이 5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 수요 확대와 높은 정제마진 및 가동률에 힘입어 석유제호조세를 보였다.

6월 수출의 경우 광주는 전년동기비 8.5% 증가한 15억 달러, 전남은 30.6% 증가한 45억8,000 달러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수입은 광주는 전년동기비 22.6% 증가한 8억1,000만 달러, 전남은 43.7% 증가한 44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6월 무역수지는 각각 6억9,000만 달러, 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홍승현 기자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20일 철강제품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방문

광주본부세관장은 20일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철강제품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금리인상, 러-우 사태 장기화, 원자재가격 상승 등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세정지원과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승환 본부세관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에 경의를 표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AEO제도를 통해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과 FTA 특혜세율 적용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소록우체국장, 발빠른 대처 보이스피싱 예방

고흥경찰서, 감사장 수여

허위사실로 1억 원을 편취하려던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우체국 직원들이 대처해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고흥군 소록우체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숙영 소록우체국장은 상품 홍보 차 고객 A씨와 통화도중 고객이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었음을 직감했다.

A씨는 해외 결제대금 문자를 받고 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스미싱범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악성 에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스미싱범이 A씨의 돈을 인출하려는 도중, 이 국장은 전형적인 스미싱기법 금융사기임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A씨는 "우체국 직원의 뛰어난 기지와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고흥경찰서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이 국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홍승현 기자